

#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과 조각승 계찬

최선일\*

- I. 머리말
- II.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과 조성발원문
- III. 조각승 戒贊의 활동과 그 系譜
- IV. 조각승 戒贊 계보의 불상 양식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에서 17세기 중반은 수백 명의 조각승들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찰에 불상을 만든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불상을 주도적으로 제작한 조각승은 40여 명에 이르고,<sup>1</sup> 이들 개별 조각승의 활동과 계보 및 불상 양식은 몇 명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중반에 副畫僧이나 次畫僧으로 참여한 조각승은 주도적으로 제작한 불상이 발견되지 않아 불상 양식에 관한 실제적인 접근이 어렵다. 또한 조선후기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이나 墨書에는 불상을 만든 장인을 畫員, 匠人, 良工, 片手 등으로 적어 개별 장인이 가진 구체적인 기능을 파악할 수 없다.<sup>3</sup> 그러나 1458년에 제작된 경북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法泉寺 조성)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畫員 李重善 李興孫, 付金 韓信, 金箔 李松山, 漆舍牛 □莫同, 刻手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1 崔宣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教彫塑』(養士齋, 2007).

2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경인문화사, 2011);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사회평론, 2012);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 연구』(세종, 2013)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3 崔宣一,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홍익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6.6).

黃小奉, 磨造 金弓同, 小木 梁日峯”으로 적어 놓아 장인의 이름과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작업 내용은 조선시대 전 기간에 통용되었고, 요즘 불상을 만드는 과정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서 화원, 장인, 양공 등으로 언급한 장인 중에는 화원, 부금, 금박, 칠사우, 각수, 마조, 소목 같은 작업을 한 장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본고에서 살펴볼 조각승 戒贊은 필자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 勝一과 應惠(應慧)를 연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5</sup> 필자는 2011년 8월 9일 전라남도 순천시 동화사 진성 주지스님의 부탁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에 봉안된 불상을 조사하였다. 그 가운데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은 대좌 묵서와 내부에 있던 조성발원문을 조사하면서 계찬이 만든 기년명 불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 계찬의 활동과 불상 양식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sup>6</sup>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계찬은 1643년에 應慧와 경북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1646년에 勝日과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1647년에 應惠와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1648년경에 勝一과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을, 1651년에 應惠와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1657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1671년에 應慧와 전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보살상 1구는 제주 심광사 봉안)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각승 계찬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기년명 불상인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중심으로 양식적 특징과 조성 관련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계찬의 활동과 조각승 계보를 밝힌 후, 그의 스승이나 선배로 추정되는 조각승 승일이나 응혜가 만든 불상과 비교하여 양식적인 특징을 밝혀보겠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무기년명 불상 가운데 응혜와 그 계보 조각승들이 만든 불상에 관하여 검토하겠다.

4 崔素林,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 研究』, 『강좌미술사』 15(2000), pp. 81-83.

5 崔宣一, 앞의 논문(2006.6), pp. 20-24.

6 조각승 계찬의 기년명 불상을 조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순천 개운산 동화사 진성 주지스님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린다.

## II.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과 조성발원문

전라남도 순천시 별양면 개운산에 자리 잡은 桐華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9교구 華嚴寺의 末寺이다. 동화사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창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혁을 알 수 있는 문헌이 남아있지 않다. 동화사는 정유재란 기간에 파괴되어 1601년에 信聰이 대웅전을 건립한 후, 1630년에 戒環이 중창하였으며, 1662년에 熙安과 法弘 등이 호선루 건립과 기와 불사를 하였다.<sup>7</sup>

### 1. <목조삼세불좌상>

대웅전 내 須彌壇 위에 봉안된 목조불상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로 이루어진 三世佛坐像이다(도 1).<sup>8</sup> 2011년 8월 9일에 사찰 측의 의뢰로 <목조삼세불좌상>의 樹種과 年輪分析 작업을 수행하던 가운데 불상 내에 있던 조성발원문과 대좌에 적힌 조성묵서를 조사하였다. 불상 내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후령통, 조성발원문, 다라니 등만 있고, 불교경전은 이전 불상 개금 시에 사찰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sup>9</sup>



도 1 계찬, 목조삼세불좌상, 1657년, 순천 동화사



도 2 계찬, 목조석가여래좌상, 1657년

7 『樂安郡開雲山桐華寺重勅記』(懸板),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자료집』(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p. 169; 朝鮮總督府 內務部 地方局 纂輯, 『前樂安郡開雲山桐華寺重勅記, 『朝鮮寺刹史料』上(朝鮮總督府, 1911), pp. 290-293.

8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은 기준에 중창기를 근거로 1696년(숙종35)으로 추정하였다(최인선, 『Ⅲ. 順天市の佛教文化遺蹟, 『順天市の文化遺蹟(Ⅱ)』(순천대학교박물관, 2000), p. 170).

9 2011년 8월 9일에 순천 동화사 진성 주지 스님과 대담 중에 알게 되었다.



도 3 계찬, 목조석가여래좌상  
측면, 1657년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가 115cm, 무릎 너비가 78.0cm인 중대형불상이다(도 2). 불상은 상체를 앞으로 조금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다. 머리에는 뾰족한 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肉髻가 있고, 이마 위에 반원형의 中央髻珠와 정수리에 위부분이 둥글고 낮은 원통형의 頂上髻珠가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가늘게 뜬 눈은 눈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원통형으로 단순하며, 입은 살짝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三道를 표현하였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목 밑에서 팔꿈치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늘어지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하반기를 덮은 대의자락은 배 밑에서 한 가닥이 완만하게 펼쳐지면서 옆으로 두 가닥이 오른쪽 바닥으로 접혀 있고, 반대쪽 대의자락도

대칭을 이루듯 세 가닥의 옷주름이 늘어져 있다. 측면에 늘어진 대의자락은 어깨선을 따라 두 가닥의 옷 주름이八字형으로 완만하게 펼쳐져 내려오다가 앞 주름은 손목으로, 뒤 주름은 엉덩이 방향으로 접혀 있다(도 3). 가슴에 입은 승각기는 상단을 수평으로 접고 앞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석가여래는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降魔觸地印하고, 왼손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手印은 조선후기 기년



도 4 계찬, 목조약사여래좌상,  
165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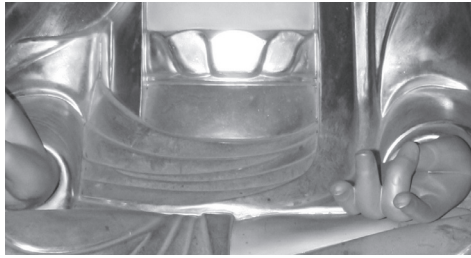


도 5 계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명 불상 가운데 석가불만 취한 자세이다.<sup>10</sup>

양 협시불인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는 본존인 석가여래와 같이 조선후기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취하고 있다. 석가여래와 약사여래는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 비슷하지만(도 4), 아미타여래

<sup>10</sup> 정은우, 「17세기 조각승 혜희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사회평론, 2006), p. 157.



도 6 목조약사여래좌상 대의 일부

는 둥근 얼굴형과 인상에서 앞에서 언급한 불상과 차이가 있다(도 5). 또한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석가여래와 약사여래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였지만, 아미타여래는 가슴까지 내려와 물방울 같은 U자형으로 마무리하였다. 왼쪽 무릎을 감싸고 있는 소매 자락은 석가여래와 약사여래가 조각되지 않은 반면, 아미타여래는 끝자락이 날카롭게 처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의 배 부분에서 편삼과 대의자락이 접히는 표현이 나타나야 하는데, 약사여래 같이 거의 수평으로 段을 이루며 접힌 형태는 조선후기 기년명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다(도 6). 특히, 협시불이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자세와 방향도 같아 기존의 삼존불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요소이다.<sup>11</sup>

따라서 목조삼세불좌상은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착의법이 약간 달라 석가여래와 약사여래는 같은 수화승이 만들었지만, 아미타여래는 조형 감각이 다른 수화승이 만든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도 7).<sup>12</sup>



도 7-1 목조석가여래좌상 상반신



도 7-2 목조약사여래좌상 상반신



도 7-3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상반신

<sup>11</sup> 이와 같이 손의 자세와 방향이 같은 협시불은 1651년에 승일이 수화승으로 만든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등이 있을 뿐이다(송은석, 「조각승 勝日과 勝日派의 造像 활동」, 『韓國禪學』 26(2010), pp. 411-449).

<sup>12</sup>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세 구의 불상 제작에 각각 수화승이 다른 예는 1703년에 전남 구례 각황전 삼불·사보살상, 1716년 강원 양구 심곡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등이다.

## 2. 조성발원문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은 각각의 불상에서 조성발원문과 대좌 목서가 조사되었다.<sup>13</sup>

### ① 造成發願文(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발견, 도 8)

前面)

衆  
生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 白己守 兩主

左輔處<sup>14</sup>施主 朴希日 兩主

右輔處<sup>15</sup>施主 朴元同 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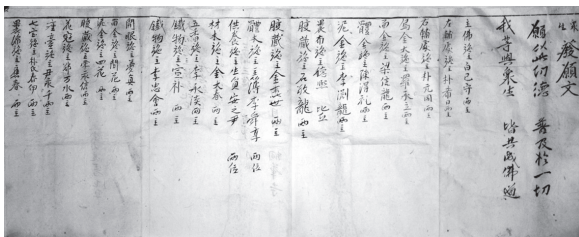
烏金大施主 羅承立 兩主

面金施主 梁信龍 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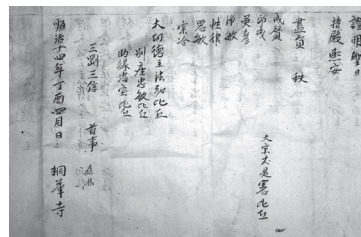
體金施主 陳得禮 兩主

泥金施主 李淵龍 兩主

裏<sup>16</sup>布施主 德熙 比丘



도 8-1 아미타여래 조성발원문 앞면, 1657년, 순천 동화사



도 8-2 아미타여래 조성발원문 뒷면, 1657년, 순천 동화사

<sup>13</sup> 이 조성발원문은 백지에 목서된 상태이고, 釋文은 필자가, 監修는 기호철 서울대 고병리연구실 기호철 선임연구원이 해 주셨다. 또한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석문은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자료집』(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pp. 287-288에 있는데 두 글자는 본인과 다르게 읽었다.

<sup>14</sup> 補處의 오기이다.

<sup>15</sup> 補處의 오기이다.

<sup>16</sup> 裏로 적혀 있다.

腹藏施主 石敬龍 兩主  
腹藏施主 金忞世 兩主  
體木施主 主簿 李舜亨 兩主  
供養施主 生員 安之尹 兩主  
材木施主 金大春 兩主  
五香施主 李承淡 兩主  
鐵物施主 宣福 兩主  
鐵物施主 李忠會 兩主  
開眼施主 夢眞 兩主  
面金施主 閏花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腹藏施主 宋永信 兩主  
花冠施主 鄭万水 兩主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七宝施主 朴氏春伊 兩主  
裏<sup>17</sup>綿施主 應春 兩主

後面)

證明 聖日

持殿 熙安

畫員 秩

戒贊

印戒 大宝丈 灵憲 比丘

英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

<sup>17</sup> 裏로 적혀 있다.

大功德主 法弘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助緣 忠宝 比丘

三剛 三信 首事 應林

順治十四年丁酉<sup>18</sup>四月日 桐華寺

② 臺座 墨書(목조석가여래좌상 대좌, 도 9)

順治十四年丁酉二月初日始役四月二十四日畢也

證明 性日<sup>19</sup> 比丘 緣化秩

持殿 熙安 比丘 供養主 三彥<sup>20</sup> 比丘

畫員 戒贊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印戒 比丘 忠宝 比丘

英彥 比丘 雷彥<sup>21</sup> 比丘

淨敏 比丘 海堅<sup>22</sup> 比丘

性律 比丘 大化士 法弘 比丘

思敏 比丘

宗洽 比丘

海元<sup>23</sup> 單身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도 9 석가여래 대좌 묵서, 1657년, 순천동화사

18 順治十四年丁酉는 1657년이다.

19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聖日로, 대좌 묵서에는 性日로 적혀 있다.

20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21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22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23 세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대좌 묵서에는 모두 적혀 있어 대좌 만들 때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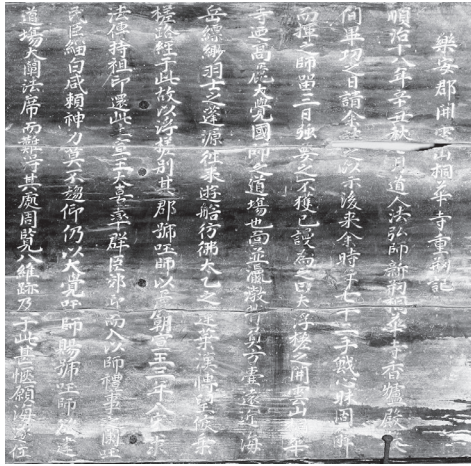
조성발원문과 목서에 언급한 사람은 총 43명으로, 이 가운데 스님은 15명이고, 일반인은 28명이다. 세 구의 불상은 1657년 4월에 만들기 시작하여 6월에 완성까지 두 달 보름이 걸렸다. 불상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의 숫자는 조성발원문에 7명, 목서에 8명을 언급하여 1명이 차이가 난다. 조성발원문과 목서에 언급한 인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발원문과 목서 관련 인명의 소임 현황

이름		조성발원문 (석가)	조성발원문 (아미타)	조성발원문 (약사)	목서명문 (석가여래)	비고
각성	覺性	禪宗大禪師		禪宗大禪師		
계찬	戒贊	畫員(1/7)	畫員(1/7)	畫員(1/7)	畫員(1/8)	比丘
김대춘	金大春		材木施主			
김막금	金莫金	引燈大施主		引燈大施主		
김말세	金耑世		腹藏施主			
나승립	羅承立	烏金大施主	烏金大施主	烏金施主		
뇌언	雷彦	助緣			○	
덕희	德熙	裏布施主	裏布施主	裏布施主		比丘
몽진	夢眞		開眼施主			
문언	文彦	○		○		
박씨춘이	朴氏春伊		七宝施主			
박원동	朴元同	右補處施主	右補處施主	右補處施主		
박인금	朴仁金	泥金裏主		臺座施主		
박희일	朴希日	左補處施主	左補處施主	主佛施主		
배씨유화	裴氏閏花	面金裏主	面金施主 (閏花로 언급)	面金施主		
배정일	裴正日	面金裏主		面金裏主		
백기수	白己守	主佛施主	主佛施主	左補處施主		
법홍	法弘	大功德主	大功德主	大功德主	大化土	比丘
사민	思敏	畫員(6/7)	畫員(6/7)	畫員(6/7)	畫員(6/8)	比丘
사화	四花	泥金施主	泥金施主	泥金施主		
삼신	三信	三剛	三剛	三剛		比丘
삼언	三彦	供養主		供養主	供養主	
석경룡	石敬龍		腹藏施主			
선복	宣卜(福)	鐵物施主	鐵物施主	鐵物施主		
성률	性律	畫員(5/7)	畫員(5/7)	畫員(5/7)	畫員(5/8)	比丘
성일	聖日, 性日	證明	證明	證明	證明	比丘
송영신	宋永信		腹藏施主			
안라두금	安羅頭金	供養施主		供養施主		
안석동	安石同	裏布施主		裏布施主		
안지윤	安之尹		供養施主			生員
양신룡	梁信龍		面金施主			
영언	英彦	畫員(3/7)	畫員(3/7)	畫員(3/7)	畫員(3/8)	比丘
영헌	靈憲	宗禪	大宝丈	宗禪		
옥륜	玉倫	山人		山人		

이름		조성발원문 (석가)	조성발원문 (아미타)	조성발원문 (약사)	목서명문 (석가여래)	비고
옥탄	玉坦	○		○		
유필신	柳弼信	裏布施主		裏布施主		
윤영천	尹永千	座臺	座臺施主	座臺施主		
응림	應林	首事	首事	首事		比丘
응춘	應春		裏綿施主			
이두정	李斗廷	腹藏施主		腹藏紙施主		
이순형	李舜亨	體木施主	體木施主	體木施主		主簿
이승담	李承淡		五香施主			
이연룡	李淵龍		泥金施主	泥金施主		
이충희	李忠會		鐵物施主			
인계	印戒	畫員(2/7)	畫員(2/7)	畫員(2/7)	畫員(2/8)	比丘
정만수	鄭万水(壽)	臺座施主	花冠施主	臺座施主		
정민	淨敏	畫員(4/7)	畫員(4/7)	畫員(4/7)	畫員(4/8)	比丘
정현	正玄	大禪師		禪師		
종협	宗洽	畫員(7/7)	畫員(7/7)	畫員(7/7)	畫員(7/8)	比丘
진득예	陳得禮		體金施主			
최씨선진	崔氏先眞	步連大施主		步連施主		
충민	忠敏	別座	別座	別座	別座	比丘
충보	忠寶	助緣	助緣	助緣	○	比丘
해건	海堅				○	
해원	海元				畫員(8/8)	單身
허이성	許以誠	供養施主		供養施主		
희안	熙安	持殿	持殿	持殿	持殿	比丘
총	57명	42명	39명	42명	16명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은 각각의 불상에서 조성발원문과 대좌 목서가 남아 있는데, 석가여래와 약사여래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은 緣化秩과 施主秩이 각각 1명씩 다르지만, 아미타여래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비교해 보면 材木, 腹藏, 開眼, 七寶, 供養, 面金, 裏綿, 五香, 體金施主 등이 다르다. 또한 대좌에 적힌 목서는 세 구가 모두 동일한 내용인데, 조성발원문과 비교해보면 畫員 마지막에 海元, 別座 마지막에 海堅이 더 언급되어 대좌 조성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목조삼세불좌상의 조성발원문에 언급된 인명은 총 57명으로, 석가여래(42명), 아미타여래(39명), 약사여래(42명)이 언급되어 있다. 불상 조성에 참여한 스님은 26명으로 재가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불상 제작의 대화사 法弘은 [樂安郡開雲山桐華寺重勸記(懸板)에 “順治十八年辛丑秋七月 道人法弘師新□桐華寺香爐殿數 間畢功之日請余誌之以示後來余時年七十二手戰心昧固辭…”과 “…出身道岬寶林天冠之勝□瑞石方丈之水石無不窮探遊至此以爲終老之計丙子年間特勸戒環其名者因與之廣募 并力盡復國師之蹟而法堂禪僧堂諸寮正門樓閣盖瓦與佛相三尊則皆法弘師之躬自所就宣力多



도 10 동화사봉황루낙안근개운산동화사중창기 일부, 1724년, 순천 동화사

海上眞境洞天雲物……”이라고 언급되어 있다(도 10).<sup>24</sup> 법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영암 도감사, 장흥 보림사와 천관사, 광주 서석사 등을 두루 돌아다니다 만년에 동화사에서 사찰 복원에 주력한 스님이다.

證明 性日, 持殿 熙安, 供養主 三彦, 別座 忠敏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문헌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재가자 중에는 李舜亨이 조선 시대 각 아문의 문서와 符籍을 주관하던 종옥품 관직인 主簿으로, 安之尹이 생원으로 언급되었을 뿐, 지역 주민이 불상 조성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Ⅲ. 조각승 戒贊의 활동과 그 系譜

조각승 계찬의 生涯와 僧匠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이 전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그가 활동한 단편적인 문헌을 통하여 활동 시기와 작업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1. 조각승 계찬의 활동

조선후기 문헌 가운데 戒贊에 관한 내용은 현재까지 9건이 조사되었다(표 2). 그 가운데 불상 조성에 관한 내용은 7건이고, 시주자로 언급된 내용은 2건이다.

표 2 戒贊 관련 조선후기 문헌

연대	지역	봉안 사찰	작업 내용	조각승	비고
1643	대구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조성	畫員 應慧 熙莊 善弘 處英 雙修 唯罔 戒贊 道岑 四龍 命弘	造成發願文

<sup>24</sup> 1724년, 나무, 45×176, 순천 동화사 봉황루 소장.

연대	지역	봉안 사찰	작업 내용	조 각 승	비 고
1646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조성	匠主列次 勝日 熙藏 太元 性照 戒贊 天學 寶海	造成發願文
1647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성	畫員 應惠 戒贊 淸眼	造成發願文 (문화재청 누리집)
1648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畫員 勝一 性照 戒贊 智安 敬玉 天學 戒明	造成發願文
	전남 여수	홍국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성	시주자로 참여	造成發願文
1651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 조성	畫員 應惠 戒贊 觀澤 雷映 印戒 玄峰	
1657	전남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畫員 戒贊 印戒 英彦 淨敏 性律 思敏 宗洽	造成發願文
1671	전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畫員 應慧 戒贊 * 제주 심광사에 보살상 1구 봉안	造成發願文
연대 미상	전북 완주	대원사	불상 조성에 시주자로 참여	戒贊	造成發願文

〈표 2〉에서 보듯이 계찬과 관련한 문헌을 통해 활동 시기와 조각승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계찬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년명 불상은 1643년에 應慧와 제작한 대구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다. 이 불상은 畫員 應慧, 熙莊, 善弘, 處英, 雙修, 唯罔, 戒贊, 道岑, 四龍, 命弘이 제작하였다.<sup>25</sup> 그 후 계찬은 1646년에 勝日과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조성하였으며, 계찬을 불상 제작자 7명 가운데 5번째로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불상의 부화승으로 참여한 회장은 승일의 계보를 대표하는 조각승이다.<sup>26</sup> 계찬이 1647년에 應惠와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1640년대에 나이가 30대 후반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1648년에 수화승 승일이 만든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에 보조화승으로, 1651년에 應惠와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을 제작할 때 차화승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1657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만들었고, 1671년에 應慧와 전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보살상 1구는 제주 심광사 봉안)을 조성하였다.

<sup>25</sup>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소장 조성발원문 복사본을 참조하였다.

<sup>26</sup> 李芬熙, 「조각승 勝一派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I(2006), pp. 83-112; 崔宣一, 앞의 논문(2006.6); 송은석, 「조각승 勝日과 勝日派의 造像 활동」, 『한국선학』 26(2010), pp. 411-449.

지금까지 밝혀진 계찬의 활동 시기는 1643년부터 1671년까지이다. 계찬이 1650년대 수화승으로 활동할 정도라면 1610년 이전에 태어나 1630년대에 불상 제작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고, 1640년대에 수화승 승일과 응혜, 부화승 희장과 성조 등과 불상을 제작하였으며, 1640년대 중반부터 부화승이나 차화승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1650년대부터 1670년대 경남 진주, 전남 순천, 전남 장성 등지에서 불상 제작에 首畫僧과 次畫僧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1660년대 수화승으로 제작한 기년명 불상이 앞으로 더 조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계찬의 조각승 계보

조각승 戒贊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조사한 조성발원문과 사적기를 중심으로 계찬과 같이 작업한 스님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조각승 戒贊과 순천 동화사 불상을 만든 조각승

僧名	活動年代	活動事項
인계 印戒	-1651-1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51년에 應惠와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을 제작</li> <li>□1653년에 전남 영암 도갑사 道詵國師守眉大禪師碑 건립에 시주자로 참여</li> <li>□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li> <li>□1678년에 應惠와 지리산 小隱蘭若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제작(광양 무등암 봉안)</li> <li>□1678년에 智玄과 경남 남해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제작</li> <li>□1689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li> <li>□1707년에 경북 김천 직지사 천불전 창건을 주도</li> <li>□1714년에 경북 김천 직지사 불상 개금에 시주자로 참여(嘉善大夫)</li> </ul>
영언 英彦	-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li> </ul>
정민 淨敏	-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li> </ul>
성률 性律	-1633-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33년 전북 고창 禪雲寺 大雄寶殿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조성에 無染과 참여</li> <li>□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li> </ul>
사민 思敏	-1657-16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li> <li>□1678년에 應惠와 지리산 小隱蘭若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제작(광양 무등암 봉안)</li> <li>□1689년에 印戒와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li> </ul>
종협 宗洽	-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57년에 戒贊과 전남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li> </ul>

지금까지 계찬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하거나 중수·개금한 문헌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활동 시기와 사승 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계찬과 관련된 기록은 불상에 서 발견된 발원문 27개이다(표 4).

표 4 계찬과 관련된 조각승 문헌

연대	지역	봉안 사찰	작업 내용	조각승	비고
1622	서울	慈仁壽兩寺	목조비로자불좌상 2존, 석가여래삼존, 노사나불 2존, 미타여래 2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등조성	畫員 玄眞 應元 守衍 玉明 法玲 明 崙 清虛 性仁 普熙 印均 敬玄 志修 太鑑 治匠 性玉 勝一 密衍 義仁 * 서울 지장암 봉안	造成發願文
1629	경북 창녕	관룡사	목조삼존불좌상 조성	畫員 玄眞 勝一 天敏 守英 坦行 哲義	
1634	경남 밀양	표충사 유물관	불상 조성	畫員 勝一 應惠	墨書銘
1635	전남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조성	畫員 無染 勝一 道祐 性修 雙照 信會 云一 信見 尙安 宥性	
1637	경북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	畫員 玄眞 勝一 靈瓚 熙玄 處英 靈湜 *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造成發願文
1639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匠人 淸憲 勝日 法玄 英曠 賢胤 應惠 希藏 尙安 學海 懶欽 靈湜	造成發願文
1643	대구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조성	畫員 應慧 熙莊 善弘 處英 雙修 唯罔 戒贊 道岑 四龍 命弘	造成發願文
1646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조성	匠主 列次 勝日 熙藏 太元 性照 戒贊 天學 寶海	造成發願文
1647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성	畫員 應惠 戒贊 淸眼	造成發願文
1648 추정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畫員 勝一 性照 戒贊 智安 敬玉 天學 戒明	造成發願文
1648	전남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조성에 시주자로 참여	戒贊	造成發願文
1651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 조성	畫員 應惠 戒贊 觀澤 雷映 印戒 玄峰	造成墨書
1651	서울	봉은사	목조여래좌상 조성(협시불)	畫員 勝一 離一 衛儀 性照 道岑 雷日 明訥 三應 楚彥 戒哲	造成發願文
1657	전남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조성	畫員 戒贊 印戒 英彥 淨敏 性律 思敏 宗洽	造成發願文
1657	전북 무주	복고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	畫員 勝一 處英 道岑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북·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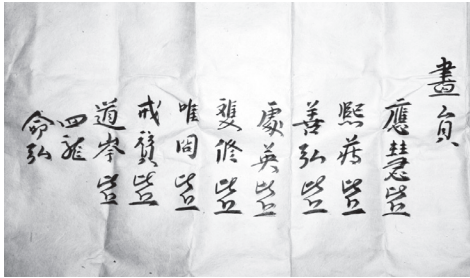
연대	지역	봉안 사찰	작업 내용	조 각 승	비 고
1658	경북 문경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성	畫工 勝一 경북 문경 운수암	造成發願文 (영남타임즈 참조)
1660	전남 담양	회적암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	畫員 相畫 應惠 海機 中者 萬生 印性 戒機 神伊 影畫 義坦 * 담양 호국사에서 백양사 성보 박물관으로 이운	造成發願文
1660	경북 경산	용밀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조성	上畫員 勝一 邊手 勝照 副畫員 明 信 淳一 一熏 玄敏 * 서울 청룡사 소장	造成發願文
1665	경북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조성	畫圓 勝一 性照 淨倫 智秀 三應 處英 寶悅 行淨 一熏 處瓊 尙明 自 圭 龍伊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북Ⅱ 자료집』
1668	경북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조성	佛像畫元 勝一 三應 宝悅 金文 文彦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북Ⅱ 자료집』
1670	경북 김천	고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畫員 勝日 性照 自圭 淸現 思遠 士能	造成發願文
1671	전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畫員 應慧 戒贊 * 제주 심광사 보살상 1구 봉안	造成發願文
1678	지리산	소은 난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조성	畫員 應惠 印戒 海機 雷侃 * 광양 무등암 소장	
1678	경남 남해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 왕상 조성	畫員 智玄 宝海 雪坦 神學 儀英 楚行 靜隣 覺明 敬謹 坦英 敏英 勝還 儀堅 信惠 印戒	
1689	전남 여수	홍국사	53불좌상 조성	畫工 印戒 思敏 哲明 雷量 弘運 六淸 演敏 <sup>27</sup> 沙彌 淨業 弘廣	
연대 미상	전북 완주	대원사	불상 조성에 시주자로 참여	戒贊	造成發願文



도 11 응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1643년, 달성 용연사

<sup>27</sup> 演敏은 淨敏일 가능성이 있다.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계찬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년명 불상은 1643년에 제작된 대구 달성 용연사 명부전 불상이다(도 11). 이 불상에서 발견한 발원문에 畫員 應慧, 熙莊, 善弘, 處英, 雙修, 唯罔, 戒贊, 道峯, 四龍, 命弘이 제작한 것으로 적혀 있다(도 12). 수화승으로 참여한 응



도 12 조성발원문 일부, 1643년, 달성 용연사

혜는 17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활동한 조각승으로,<sup>28</sup> 1639년에 수화승 청현과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수화승으로 1647년에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1660년에 전남 담양 호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장성 백양사 성보박물관 소장)을, 1678년에 지리산 소은난야 <목조대세지보살좌상>(광양 무등암 봉안)을 제작하였다(도 13).

그리고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한 印戒는 1678년에 수화승 응혜와 지리산 소은난야 <목조대세지보살좌상>(광양 무등암 봉안)을, 1689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하였다(도 14). 따라서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만든 계찬과 인계가 모두 응혜와 같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응혜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혜는 17세기 전반부터 활동한 승일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다. 조각승 勝日(勝一)은 활동 시기가 1622년부터 1670년까지로, 50여 년의 활동이 밝혀진 승장이다. 그는 1622년에 수화승 현진이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제작할 때, 冶匠으로 참여하였다.<sup>29</sup> 그 후



도 13 응혜,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78년, 광양 무등암



도 14 인계, 석조여래좌상, 1689년, 여수 흥국사

<sup>28</sup> 孫永文, 「彫刻僧 應惠派 佛像彫刻의 研究-潭陽 晦迹庵 木造阿彌陀佛像을 中心으로」, 『불교문화연구』 8(2006), pp. 61-93.

<sup>29</sup> 문명대, 「17세기 전반의 조각승 현진파(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목(木) 비로자나불좌상(毘盧遮那佛坐像)의 연구」, 『강좌미술사』 29(2007), pp. 355-380.

에는 淸憲이나 無染과 불상을 같이 제작하다가 1640년대 수화승으로 불상 제작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목조불상이 시기적으로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가 가진 주요한 기능은 불상을 직접 조각하는 것보다 철을 다루던 冶匠으로 시작하여 점차 불상 제작을 주도하는 수화승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思敏은 1689년에 수화승 인계와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하였고, 性律은 1633년에 수화승 무염의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삼신불좌상>을 만들었다. 나머지 莢彦, 淨敏, 宗洽은 불상 제작에 참여한 기록이 처음으로 조사된 조각승이다.

#### IV. 조각승 戒贊 계보의 불상 양식

조선후기 불상 가운데 발원문과 사적기를 통해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은 350여 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계찬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불상은 여래상 3점이다. 계찬이 제작한 불상은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불상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삼세불로 조성된 세 구의 불상이 신체 비율과 대의 처리 등에서 차이가 있고, 같은 시기에 활동한 다른 계보의 조각승들이 만든 불상과도 양식적으로 다르다.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계찬의 스승이나 제자로 추정되는 현진(-1612-1637-) → 승일(-1622-1670-) → 응혜(-1639-1678-), 계찬(-1643-1671-) → 인계(-1651-1714-), 사민(-1657-1689-)의 기년명 불상과 비교하여 조각승 계찬 작 불상의 특징과 그 계보 불상 양식의 변천과정을 밝혀볼 수 있다.

우선 계찬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유일한 기년명 불상인 1657년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은 석가불과 약사불이 유사하지만, 아미타불은 인상이나 착의법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 다른 조각승이 불상 제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작업 방식은 1654년에 경북 경산 반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sup>30</sup> 1703년에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불>과 <사보살상>,<sup>31</sup> 1716년에 강원 양구 심곡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32</sup>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수화승이나 부화승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는 관

<sup>30</sup> 임남수 외, 「고령 반룡사(盤龍寺) 비로자나삼존불좌상」, 『民族文化論叢』 46(2010), pp. 543-581.

<sup>31</sup> 吳珍熙, 「조각승 色難派와 華嚴寺 覺皇殿 七尊佛像」, 『강좌미술사』 26-1(2006), pp. 113-138.

<sup>32</sup> 林玲愛, 「조선후기 강원도 양구 深谷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강좌미술사』 20(2003), pp. 83-103.



a 응혜, 목조지장보살좌상, 1643년, 달성 용연사  
 b 응혜, 목조보살좌상, 1647년, 군산 불지사  
 c 응혜, 목조여래좌상, 1660년, 담양 호국사  
 d 응혜, 목조보살좌상, 1671년, 제주 심광사  
 e 응혜,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78년, 광양 무등암

도 15 응혜 작 기년명 불상

례에 따라 이 삼세불은 계찬이나 인계가 각각 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계찬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조각승은 응혜와 인계이다. 계찬의 스승이나 선배로 추정되는 응혜의 기년명 불상은 1643년 경북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시작으로, 1647년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60년 전남

담양 회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백양사 성보박물관 소장), 1671년 전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제주 심광사에 보살상 1구 봉안), 1678년 전남 소은난야 <목조대세지보살좌상>(광양 무등암 봉안)이 남아있다. 응혜의 작품들은 그의 활동 기간에 비해 불상 양식 변화의 폭이 큰 편이다.

조각승 응혜의 불상 양식은 여래상과 보살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응혜가 1660년에 제작한 담양 회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 15c)은 조각승 승일이 제작한 1646년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 16)이나 1651년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불>과 <목조약사여래좌상> 등과 비교해 보면(도 17), 승



도 16 승일, 목조여래좌상, 1646년, 구례 천은사 수도암



도 17 승일, 목조아미타불좌상, 1651년, 서울 봉은사

일이 만든 불상에 비해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아 당당한 느낌이 없으면서 신체 비율이 왜곡되어 보인다. 하지만 여래상의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나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의 처리는 1651년에 조각승 승일이 만든 서울 봉은사 <협시불>과 유사하다. 그러나 응혜의 초기 작품인 1643년에 조성한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머리, 어깨의 표현이 인체와 비슷하여 자세가 안정적이고, 대의 처리는 옷 주름의 간격이나 높낮이를 균일하지 않게 표현하여 자연스럽다(도 15a). 이렇게 오른쪽 어깨와 하반신에 늘어진 대의 처리 방법은 승일이 만든 1646년 구례 천은사 <목조여래좌상>과 1651년 서울 봉은사 <협시불>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계찬이 만든 1657년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목조약사

여래좌상>과 1660년 응혜가 만든 담양 회적암 <목조여래좌상>은 대의처리가 유사하지만(도 15c), 1657년 순천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긴 물방울의 U자형으로 늘어져 있어 승일이 만든 1646년 구례 천은사 <목조여래좌상>과 유사하지만 형식화 된 느낌이 있고(도 16), 인계가 1689년에 만든 여수 흥국사 <석조여래좌상>에서는 도식화가 더 진행되어 U자형의 대의자락이 나타난다(도 14). 이와 같이 불상의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락이 긴 물방울 형태인 U자형의 묘사는 1640년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활동한 조각승들이 모두 표현한 요소이다.

응혜가 1660년 이후에 만든 목조보살좌상은 보살상 밑에 대좌를 조각하면서 대의자락이 대좌 밑으로 늘어져 반원을 그리면 좌우 대칭을 이룬다. 이런 보살상의 대의자락은 17세기 활동한 다른 조각승이 만든 기년명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요소이고, 18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 상정이나 봉현 등이 만든 불상에서 대의자락 사이에 연봉오리가 표현된 예가 있을 뿐이다.<sup>33</sup>

<sup>33</sup> 최선일, 「18세기 중반 彫刻僧 尙淨의 활동과 佛像 研究」, 『美術資料』 75(2006), pp. 33-54.



도 18 희장, 목조아미타불좌상, 1650년, 진안 금당사

계찬이 만든 1657년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 가운데 아미타불에서 왼쪽 무릎을 감싸고 있는 소매 자락의 이 뾰족하게 사선으로 늘어져 있는 것은 1646년에 조각승 승일이 만든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0년에 희장이 제작한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도 18), 1680년에 보해가 조성한 고흥 송광사 <목조여래좌상> 등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한편 계찬이 제작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의 승각기 형태는 각각 차이가 많이 난다. 본존의 가슴을 묶은 승각기는 상단을 수평으로 접고 앞자락을 둥글게 처리하여 조선 후기 불상 가운데 가장 특이하다. 그렇지만



도 19 목조여래좌상, 1650~60년대, 부산 대각사



도 20 목조여래좌상, 1650~60년대, 창녕 청련사

협시불은 조선후기 기년명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섯 개의 연판문을 상단에 조각하였다.

지금까지 계찬과 그 계보의 조각승들이 제작한 불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각 조각승의 양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불상에 대해 추론해 보면, 부산 대각사 <목조여래좌상>과 창녕 청련사 <목조여래좌상>은 전체적인 인상과 대의 처리 등이 동일하여 계찬이나 그 계보 조각승이 1650~60년대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도 19, 20).

#### IV. 맺음말

이상으로 17세기 중반에 조각승 승일, 응혜와 같이 활동한 계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밝혀진 문헌의 한계로 인하여 계찬의 생몰연대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지만, 현진(-1612-1637-)→승일(-1622-1670-)→응혜(-1639-1678-), 계찬(-1643-1671-)→인계(-1651-1714-), 사민(-1657-1689-)으로 이어지는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 계보는 밝혀졌다. 응혜와 계찬은 활동 시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師弟之間보다 선후배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발원문과 사적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계찬의 생애는 1610년 이전에 태어나 1630년대 불상 제작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고, 1640년대 수화승 승일과 응혜, 부화승 희장과 성조 등과 불상 제작에 참여한 후, 1640년대 후반부터 부화승이나 차화승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밝혀진 그의 활동 시기는 1643년부터 1671년까지이다. 그가 불상 제작에 참여한 지역은 대구 달성, 전남 순천, 전남 장성 등으로 남부지역에 걸쳐 있다. 그는 승일과 응혜의 계보에 속하고, 인계와 사민에게 불상 제작 기술을 전수한 조각승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계찬은 기존 스승이나 제자들과 불상을 만드는 조형 감각이 달랐다. 계찬이 수화승으로 만든 기년명 작품이 1657년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 밖에 없어 그의 양식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알려져 있지 않은 기년명 불상을 학계에 새롭게 공개하고, 조각승 계찬이 17세기 불교조각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힌 것은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계찬이 제작한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무기년명 불상 가운데 부산 대각사 <목조여래좌상>과 창녕 청련사 <목조삼세불좌상>은 1650-60년대에 계찬과 관련된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만든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계찬이 수화승으로 만든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은 오른쪽 어깨에 늘어진 대의자락을 반원형과 U자형으로 처리하고, 결가부좌한 하반신 중앙에서 펼쳐진 단순한 옷자락의 표현은 조각승 승일이 만든 불상을 계승한 것이며, 하반신에 뽀족하게 사선을 그리며 늘어진 소매자락은 승일이나 희장이 만든 불상의 요소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각기의 표현이나 편삼을 입어 대의와 겹쳐진 부분의 비현실적인 처리 등은 계찬이 만든 불상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전국 사찰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상의 조성발원문이 앞으로 더 공개된다면 17세기 중반에 불상을 제작한 계찬이나 인계 등의 활동이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고,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나 사찰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지역적 불상 양식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조선후기(朝鮮後期, Late Joseon Dynasty), 조각승(彫刻僧, Monk-sculptor), 계찬(戒贊, GyeChan), 발원문(發願文, Dedicative Inscription), 동화사(桐華寺, Dongwhasa)

■ 투고일 2014년 11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4년 12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월 20일 ■

〈참고 1〉

① 목조석가여래좌상 발견 조성발원문

前面)

別座	忠敏	比丘	供養主	三彦	比丘	持殿	熙安	比丘	證明	聖日	比丘	腹紙施主	已去	黃泉	李斗廷	供養施主	許以誠	保休	鐵物施主	宣下	兩主	引燈大施主	金莫金	兩主	步連大施主	崔氏先眞	兩主	供養施主	安羅頭金	保休	座臺施主	鄭萬水	兩主	座臺	尹永千	兩主	座臺施主	林仁金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烏金施主	李淵龍	兩主	面金施主	裴正日	兩主	面金施主	裴氏閏花	單身	體木施主	主簿	李舜亨	兩主	裏布施主	德熙	比丘	裏布施主	柳弼信	兩主	裏布施主	安石同	兩主	烏金大施主	羅承立	兩主	右輔處施主	朴希日	兩主	左輔處施主	朴希日	兩主	白己守	兩主	主佛施主	白己守	兩主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衆生	願我發願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後面)

宗洽	思敏	性律	淨敏	靈彥	印戒	戒贊	書員秩	玉坦	文彥	山人	玉倫	靈憲	敬玄	正	大禪師	宗禪	覺性	大功德主	法弘	比丘	雷彥	比丘	忠寶	比丘	助緣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	三剛	三信	首事	應林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2>

② 목조약사여래좌상 발견 조성발원문

前面)

生衆 願我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主佛施主 朴希日 兩主  
 左輔處施主 白己守 兩主  
 右輔處施主 朴元同 兩主  
 烏金施主 羅承立 兩主  
 裴布施主 安石同 兩主  
 裴布施主 柳弼信 兩主  
 裴布施主 德熙 比丘  
 體木施主 主簿 李舜亨 兩位  
 面金施主 裴氏閏花 單身  
 面金施主 裴正日 兩主  
 烏金施主 李淵龍 兩主  
 泥金施主 四花 兩主  
 座臺施主 朴仁金 兩主  
 座臺施主 尹永千 兩主  
 座臺施主 鄭萬壽 兩主  
 座臺施主 安羅頭金 保體  
 供養施主 崔氏先眞 兩主  
 步連施主 金莫金 兩主  
 引燈大施主 宣卜 兩主  
 鐵物施主 許以誠 保體  
 供養施主 許以誠 保體  
 腹藏紙施主 己去 黃泉 李斗廷  
 證明 聖日 比丘  
 持殿 熙安 比丘  
 供養主 三彥 比丘  
 別座 忠敏 比丘  
 助緣 法弘 比丘  
 大功德主 法弘 比丘  
 禪宗大禪師 覺性  
 禪師 正玄

後面)

宗禪靈憲  
 山人玉倫  
 文彥  
 玉坦  
 順治十四年丁酉四月日桐華寺  
 首事 應林  
 三剛 三信  
 書員 秩  
 戒贊  
 印戒  
 靈彥  
 淨敏  
 性律  
 思敏  
 宗洽

## 참고문헌

### 1. 단행본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 연구』, 세종, 2013.

朝鮮總督府 內務部 地方局 纂輯, 『前樂安郡開雲山桐華寺重勘記』, 『朝鮮寺刹史料』 上, 朝鮮總督府, 1911.

崔宣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彫塑』, 養士齋, 2007.

\_\_\_\_\_,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자료집』,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자료집』,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 2. 논문

문명대,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목 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2007, pp. 355-380.

孫永文, 「彫刻僧 應惠派 佛像彫刻의 研究-潭陽 晦迹庵 木造阿彌陀佛像을 中心으로」, 『불교문화연구』 8, 2006, pp. 61-93.

송은석, 「조각승 勝日과 勝日派의 造像 활동」, 『한국선학』 26, 2010, pp. 411-449.

吳珍熙, 「조각승 色難派와 華嚴寺 覺皇殿 七尊佛像」, 『강좌미술사』 26-I, 2006, pp. 113-138.

李芬熙, 「조각승 勝一派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I, 2006, pp. 83-112.

임남수 외, 「고령 반룡사(盤龍寺) 비로자나삼존불좌상」, 『民族文化論叢』 46, 2010, pp. 543-581.

林玲愛, 「조선후기 강원도 양구 深谷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강좌미술사』 20, 2003, pp. 83-103.

정은우, 「17세기 조각승 혜희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 사회평론, 2006, pp. 152-175.

崔宣一,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6.6.

최선일, 「18세기 중반 彫刻僧 尙淨의 활동과 佛像 研究」, 『美術資料』 75, 2006, pp. 33-54.

崔素林,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 研究」, 『강좌미술사』 15, 2000, pp. 81-83.

최인선, 「Ⅲ. 順天市의 佛敎文化遺蹟」, 『順天市의 文化遺蹟(Ⅱ)』, 순천대학교박물관, 2000.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전라남도 순천시 동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한 계찬비구에 관한 연구이다. 이 보살상은 2011년 8월에 사찰의 의뢰를 받아 나무의 종류와 연륜연대 등을 조사 하던 중에 발원문을 비롯한 복장물과 대좌의 조성목서가 조사되어 조선후기 삼세불 연구에 기준 이 될 정도의 작품이다.

발원문에 의하면 목조삼세불좌상은 1657년 4월에 만들기 시작하여 6월에 완성까지 두 달 보 름이 걸렸고, 불상 제작에 화원 계찬과 인계 등이 참여하였다. 이 불상을 제작한 계찬은 1643년에 응혜와 대구 달성 용연사 명부전 불상을, 1646년에 승일과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 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1647년에 응혜와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1648년경 에 승일과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을, 1651년에 응혜와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을 제작하 였다. 그는 1657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1671년에 응혜와 전 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보살상 1구는 제주 심광사 봉안)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계 찬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불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115cm의 중대형 불상이다. 불상은 상체를 앞으로 조금 내밀어 자세 가 구부정하다.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가 있고, 이마 위에 반월형의 증앙계 주와 정수리에 위부분이 둥글고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가늘게 뜬 눈은 눈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원통형으로 단순하며, 입은 살짝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거 의 직선의 삼도를 표현하였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목 밑에서 팔꿈치까지 완만한 곡선 으로 늘어지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밑에서 한 가닥이 완만하게 펼쳐지면서 옆으로 두 가닥이 오른쪽 바닥 쪽으로 접혀 있고, 반대쪽 대의자락도 대칭을 이루듯 세 가닥의 옷주름이 늘어져 있다. 가슴에 입은 승각기는 상단을 수평으로 접고 앞 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수인은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항마촉지인하고, 왼손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인은 조선후기 기념명 불 상 가운데 석가불만이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협시불은 얼굴 형태와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 약 간 다르고, 오른쪽 어깨에 늘어진 대의자락도 반월형과 U자형으로 차이가 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조각승 계찬은 현진(-1612-1637-)→승일(-1622-1670-)→응혜(-1639-1678-), 계찬(-1643-1671-)→인계(-1651-1714-), 사민(-1657-1689-)으로 이어지는 17세기 전·중 반에 대표적인 조각승 계보에 속하는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Abstract

# A Seated Wooden Buddha Triad at Donghwasa in Suncheon and Monk Sculptor Gyechan

**Choi Sun Il**\*

This paper studies the Buddhist monk Gyechan, who sculpted a seated wooden Buddha triad at Donghwasa in Suncheon, South Jeolla Province. This triad was first examined at the request of the temple in August 2011, and the research on the type of wood used for the triad and the year of production led to a subsequent investigation of the Buddhist relics contained in the statue, including a letter of prayer, and the dedicative inscription on the pedestal, which helped to establish the research standards on triad Buddha statue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he letter of prayer in particular illustrates that it took two and a half months to complete the triad, from the 4th lunar month to the 6th lunar month of 1657, and that several sculptors including Gyechan and Ingye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process. Gyechan also collaborated with other monk-sculptors for several more Buddha images: a Buddha in the Hall of the Nether World at Yongyeonsa in Dalseong with the monk Eunghye in 1643; a seated wooden Amitābha Buddha and a seated wooden Mahāsthāmaprāpta bodhisattva at Sudoam of Cheoneunsa in Gurye with Monk Seungil in 1646; a seated wooden Avalokiteśvara bodhisattva at Buljisa in Gunsan with Monk Eunghye in 1647; a seated wooden Buddha triad at Jeongsusa in Gangjin with Monk Seungil in 1648; and a Buddha at Eunjeongdae in Jinju with Monk Eunghye in 1651. Monk Gyechan was the leading sculptor in producing a seated wooden Buddha triad in the main hall of Donghwasa in Suncheon in 1657 and a seated wooden Amitābha Buddha triad at Baekyangsa in Jangseong in 1671 with

---

\* Member, Evaluation Committee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onk Eunghy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 statue made by Gyechan as the leading monk was discovered.

The central Buddha, Śākyamuni, is a medium-sized wooden statue with the height of 115 centimeters. The upper body of the statue inclines forward with a slight tilt. The round beads of the Buddha's curly hair and the protrusion on the head are separated with an unclear border, while the forehead adorns a semicircular central jewel, and on the top of the head is a cylindrical jewel with a round, short top. On its oval face are narrowed eyes with a slight upward slant, a plain cylindrical nose, and faintly smiling mouth. The statue has three near-straight lines of wrinkles on its neck. The robe drapes from the right shoulder in a gentle curve from below the neck to the elbow, passing the belly towards the left shoulder. The rest of the robe covers the lower body, with a strand gently stretching under the belly and two strands folded towards the bottom right side. The opposite side of the robe drapes in three strands as if to create a symmetrical effect. The undergarment on the chest is horizontally folded on the upper part to make a round shape on the front. The right hand is placed on the lap, striking the pose for the hand seal of touching the earth, or the subjugation of evil, while the left hand is on the lap with the thumb touching the middle finger. Among many different Buddhist statues of late Joseon with a specified year of production, the said gesture is seen only on statues of the Śākyamuni Buddha. The attendant Buddha statues on both sides of the main Buddha give a different impression on the shape of face and features, and the robes on their shoulders droop in a semicircle and U-curved shape.

This study finds that Gyechan belongs to the genealogy of great monk sculptors in the early- and mid-17th century, which began with Hyeonjin (-1612-1637-) and continued through Seungil (-1622-1670-), Eunghye (-1639-1678-), Gyechan (-1643-1671-), and Ingye (-1651-1714-) to Samin (-1657-1689-).